

2017년 5월 27일, 성산을 신양리 오성홍 씨 덕, 송정희 조사.
오성홍(남, 1927년생, 성산을 신양리)

- 줄거리: 새벽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외밭로 서서 있는 도깨비를 보고 놀란 아버지가 뉘을 들어서 병이 나았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깨비가 쫓곶데 오다그네 파지직허민, 그때 그 사름이 놀래부는 거라. 놀래민 그때 녀낫젠 허멍, 이제 녀도 들어보고 심방도 돌아당 헤보고 그거죽 뉘뉘. 혼적 이 엇어. 도깨비 심영 게와에 낵 오랏자 엇어. [웃음]

[조사자] 도깨비 뉘 놀랏저 허는 얘기는?

[제보자] 놀랏저 허는 얘기는이 바당에 하영 덩기주게. 이디 사름이 불이 편쩍허게 나오민 놀래그네 우리 아버지네도 듬북허레 오랏단, 그거 전봇대 네 밧디 세우고 가운데 이제 제라헌 전봇대 세와그네에, (불청) 들이창 그건 제라허게 기계도 잇고 허는 건디.

그 헉나 세우는 그 자리에 그 각구 낵 영 네 개나 세 개 세와. 영영 세우고 가운데 기계가 뉘인가 요 기계로 세우고 허는디, 그것에 우리 아바진 밤이난, 새벽에 듬북허레 가는디, 듬북허단 동산에 올라오민 오는디, 아, 오단 보난, 영 허는 게 막 웨발 돈은게 샅어. 게난 그거에 놀래네, 막 녀드리고 헤난디, 녀드리민 뉘 그 도깨비렌 헉 게 뉘 심영 승허는 건 아니라. 승허는 건 아난디 사름이 주악허게 놀래민 녀낫젠 허멍 허는 거주게. 옛날 무신 술이나 혼 잔 먹고, 거딱거딱 덩기는 사름은 거딱 안 헤. 뉘음이 곱게 덩기당 즐락허게 놀래민 그게 뉘이주게.

[조사자] 경 헉 뉘드령 낫앗수과? 아버지는?

[제보자] 응. 녀드령 낫고. 뉘 이 배가 만약에 파산뉘민, 그때 집에 오랑 녀들여 불고 무시거 허민 좋은디, 내 불어. 게민 그때 파썩 죽어지카 부덴 겁이 나주게. 게민 이제 녀들이지 안 헤그네 내 불민 이제 그게 이 뉘음으로부떠 뉘이 들어. 뉘음이 강 헉 딱 시끄럽다 헉 버려불민 어뉘 안 헤는디.

‘아이고 난 놀래졌이카.’

우리 아바진 경 행 이젠, 거 받 놀래도 어땡 안 헛덴 허고, 큰아바진 배에 갓
다네, 다 동서덜토 죽어불고 이녁 이제 혼자만 두 헨가 몇 헤 살아부나네, 녀드
리고 무신 에에 젊을 때난게.

“관계엇어. 관계엇어.”

허멍, 관계엇덴 허멍, 녀 안 들이고 네불민, 츠츠큐츠큐 이제 혼 번이나 아파가
민 이녁 속으로 이녁 속으로

‘녀드려불겔. 녀드려 불 겔. 녀 아니 드려 부난 이제 내가 뵤인가?’

몸이 약허민 뵤이 뵤부는 거라. 쟁 낭중에 정신 어질와네 미천, 우리 큰아바지
는 미치고 우리 아바진 ㄱ닥 안 현. 경 행.

‘아이고 그 따문에 죽어질 건가?’

‘경 헤부난 흠끔이라도 더 아팠인가?’

영 행 그 몸이 약허민 뵤 되는 거라.

- 핵심어 : 도체비, 외발, 녀, 몸, 바당, 듬북, 새벽, 도깨빋불, 도깨비, 아버지, 녀드림